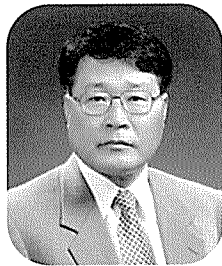


광전자(주)

반도체 부품 전문 메이커

표 시소자 LED의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광전자주식회사는 1984년 7월 전자산업의 불모지인 전북 익산에서 코리아테크노(주)로 출발하여 범용 전자부품인 트랜지스터와 수발광 다이오드, Photo Sensor, IC, Wafer Fab, LDM 등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이며 1995년 광전자(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1996년 주식을 상장한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수·발광 다이오드 국내시장의 35%, 트랜지스터 세계시장의 6%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부품 전문 메이커이다.



- 대표 : 이택렬
- 주소 : 전북 익산시 신흥동 802-12
TEL : 0653)835-7111 FAX : 0653)835-2681
- 홈페이지 : <http://www.auk.co.kr>
- 주요생산품목 : 트랜지스터, LED, IRED, Photo Diode, Photo Transistor, 리모콘 모듈, LDM, Pixel, I.C, Fab, Information Net Work, Display Board

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기술혁신으로 1993년 전문경영자인 이택렬 사장 취임이래 당시 200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을 6년만인 IMF의 정점이던 지난해에 오히려 1,05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시킨 저력에서도 알 수 있다.

국내 유일의 명실상부한
광반도체 메이커로서의
선도적 입지 구축해

부품 전문업체로의 성장을 위해 1997년 SOP/DIP IC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Chip공급을 자체 Wafer Fab Line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Wafer Process로부터 조립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공정 체제가 확립되어 국내 유일의 명실상부한 광반도체 메이커로서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그 특성상 고도의 두뇌가 요구되는 기술집약 산업으로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형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IMF 체제하의 국내기업의 현실에서 보았듯이 문어발식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외형위주의 차입경영에 의존한 기업은 거품이 빠지자 기업의 부실화는 물론 구조조정의 위기까지 당하게 되었으나 이 회사는 설립이래 지금까지 오직 반도체 분야에만 전력을 기울여 세계 일류기업들과의 경쟁력을 갖추

「이택렬 사장」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형 경영추구

대표이사 이택렬 사장은 「생명있는 반도체를 통한 인류생활에의 공헌」이라는 경영이념하에 “적자를 내는 기업은 사회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후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업인의 사명”이라는 경영철학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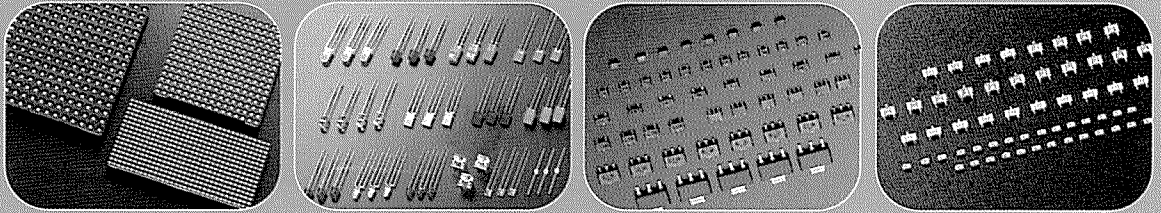
서 광전자는 반도체 기술혁신을 주도하자는 목표아래 1988년 7월 부설 전자연구소를 설립하여 유포 일렉트로닉스 분야를 주축으로 광응용부품 분야까지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여 국

속에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투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으며 1999년에도 고부가가치 상품, 신상품, 설비자동화 및 합리화등에 200억원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

년 수출 5,000만불 탑 수상과 1998년 8,000만 달러 수출, 올해에는 1억불의 수출목표로 무역수지 개선 및 국내 전자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9년에도 지속적인 환율



내 최초의 분리형 Photo Interrupter 및 SMD Photo Coupler, Chip LED를 이용한 LDM 등을 개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의 소형화 및 고집적화 요구에 따라 표면실장형(SMD) 기술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개발로 SOT-23/323/89/223/25/26/343/353/363/1608, SOD-323/1208 등의 Package를 개발, 국내에서는 가장 다양하게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용 Computer 분야인 차세대 고부가 핵심부품인 DVD 및 CD Pick-up용 수광소자가 자체개발 공급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IrDA도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규격의 Full Color LDM도 개발되어 호평

어서 향후 이 회사의 사업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또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품질방침을 주축으로 효율적인 품질시스템 운영과 전공정의 지속적 개선활동으로 무결점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고자 1995년 ISO-9002 인증, 1998년 UL, QS-9000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한 품질비용 40%의 절감효과도 얻고 있다.

축적된 기술력과 높은 품질 수준으로 올해 1억불 수출목표

이러한 축적된 기술력과 품질수준으로 국내 가전 3사는 물론 Fairchild, Motorola, Zetex 등 굴지의 해외업체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해외판매망을 구축하여 1995

불안과 원화 평가절상 압력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의 약화 및 전방위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노사관계의 불안정, 고객 요구품질 수준의 증가 등 1998년 못지 않는 어려운 경영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한 광전자는 「부가가치 경영체제 확립」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QS-9000 품질시스템을 정착시키고 6시그마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고객요구품질 수준 달성과 Low Cost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내실경영으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확고히 하고 제품 차별화 및 상품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에 노력하여 다가오는 2000억 달성으로 한국 전자부품산업의 대표기업이 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